

보도시점

2026. 8. 5.(수) 18:00

배포

2026. 8. 5.(수) 06:00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폭염 대비 산란계·젖소 농장 점검

- 산란계·젖소 폭염 대응 상황 점검 및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 수칙 준수 당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8월 5일(수)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하여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산란계와 젖소 농가의 폭염 대응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종구 차관은 산란계 농장에서 안개분무시설 등 폭염 대응 장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인근 젖소 농가를 방문하여 축협 차량을 활용한 살수 지원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종구 차관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축사 환기와 적정 사육밀도 관리, 충분한 급수 등 기본적인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 정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신속히 활용하여 현장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살수 지원이 필요한 취약 농가를 직접 발굴해 주기적으로 살수하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을 활용하여 산란계 농가 200호에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고, 긴급급수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 상황실을 통해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대응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취약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1-2317)
			주무관	이용호	(044-201-2330)

